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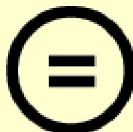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年8月
教育學碩士(漢文教育)學位論文

남·북한 중학교 한문 교과서 비교 분석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漢文教育專攻

金 烊 亨

남·북한 중학교 한문 교과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f Sino-Korean Textbooks for
Middle Schools in South and North Korea

2010年 8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漢文教育専攻

金 烊 亭

남·북한 중학교 한문 교과서 비교 분석

指 導 教 授 韓 睿 婪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漢文教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0年 4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漢文教育專攻

金 煜 亨

金柱亨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查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印

審查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印

審查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印

2010年 6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i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방향	5
II. 체재 및 구성유형의 비교	8
1. 북한 한문 교과서의 체재	8
2. 남한 한문 교과서의 체재	18
III. 북한 한문 교과서 내용 분석	23
1. 학년별 제재	23
2. 내용구성의 특징	44
IV. 결 론	55
참 고 문 헌	59

< 표 목 차 >

<표 1> 고등중학교 1학년 한문 교과서 ‘머리말’	10
<표 2> 북한 한문 교과서 단원 구성 유형	17
<표 3> 남한 한문 교과서 단원 구성 유형	20
<표 4> 북한 한문 교과서 ‘한자모양의 변화발전’	24
<표 5> 북한 한문 교과서 삼화	26
<표 6> 북한 한문 교과서 ‘제 四十三과. 산과 강이름’	28
<표 7>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교시문 형식 소단원	45
<표 8>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설명문 형식 소단원	48
<표 9>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 교과서 일기문 형식 소단원	52
<표 10>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 교과서 운문 형식 소단원	54

A Comparative Study of Sino-Korean Textbooks for Middle Schools in South and North Korea

Kim Ju-Hyoeng

Adviser : Han Yae-Won Litt.D.

Major : Sino-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bout 60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 wa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As a result, the differences in culture, art and education as well as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have been intensified. Therefore, this is the time to check languages and literature in various areas before gaps of language us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arply widen.

Education aims to provide information in all areas such as senses of value and ways of thinking and behaviors to help people to live humanly. Korean language education remarkably needs exchanges and cooperations and special attentions should be paid to homogeneity in sino-Korean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most of our language is composed of sino-Korean.

Now, South Korea is using sino-Korean words in writing or language use. However, North Korea is using only Korean language and teaches sino-Korean only for school education. In addition, there are remarkable

differences in educational ideas of sino-Korea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educational ideas of North Korea are to admire and idolize of Kim Il Sung and Kim Jung Il, advocate revolutionary ideas of socialism, and emphasize war. Therefore, its sino-Korean education is characterized by orders and ideas Kim Il Sung family gave to sino-Korean education, and knowledge of revolution. It is suggested that more desirable sino-Korean education and culture of national harmony can be achieved when North and South Korea jointly participate in preparation for which such gaps in language and words are considered to prepare for unificat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targeted two kinds of sino-Korean textbooks for middle schools(published by Donghwasa and Gyohaksa) from 11 kinds of textbooks published based on the 7th Curriculum and those published in North Korea in 2001.

Chapter I analysed differences in external systems of sino-Korean textbooks of South and North Korea. Forms of unit lessons, quantity of textbooks, and quantities of sino-Korean words for each grade and new sino-Korean words were compare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textbooks used in North and South Korea.

Chapter II analysed differences in materials consisting of sino-Korean textbooks in South and North Korea. Materials of textbooks for each grade were examined to determine characteristics of compositions of sino-Korean textbooks. It is expected that the sino-Korean education ideas can be established if what materials are used for sino-Korean textbooks is definitely analysed.

Chapter III analysed contents and main styles of sino-Korean textbooks of North Korea in which Korean-Chinese combined sentences are mainly used. Through such process, this study determines features of sino-Korean used in educational fields of South and North Korea, aiming at reinterpreting tradition.

Chapter IV discovered common things in sino-Korean education and their meanings in the circumstance when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lasts in order to develop future plans on sino-Korean textbooks by understanding and accepting different positions.

Language and literature are bases of basic commun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eople and cultural creation,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national identity. Therefore, to examine differences in sino-Korean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 basis for recovery of national homogeneity.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a foundation of unified sino-Korean education, and helpful to development of effective sino-Korean education systems through developing curriculums,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future unification.

I. 서 론

1. 연구 목적

남북한이 분단된 지 어느덧 60여년이 흘렀다. 그 결과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정치, 경제, 사회면에 있어서의 차이는 물론이고,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면에서도 단절된 만큼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양쪽의 언어 사용면에도 심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상태로 시간이 더 경과하게 된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수고를 기울이지 않고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 따라서 분단 상황으로 인한 양쪽의 언어생활의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기 이전의 지금 단계에서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 양식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 분야 가운데에서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부문으로 국어 교육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한자 교육의 동질성 여부는 우리말 대부분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자 교육 부문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는 작업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초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남한에서는 아직도 문자·언어생활에서 많은 수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1972년 학교 교육과정에 한문교과를 독립 설치한 이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서는 정규과목이 되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1949년에 공식적으로 모든 출판물에서 한자 사용을 폐지해 버렸으나, 1968년에 다시 한자 교육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일반 사회인들은 아직도 한글전용의 문자·언어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교 교육에서만 한문 교과를 운영하면서 한문 교육을 하고 있다.¹⁾

어문정책은 남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기반이 되어 문화 창조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면에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지식인이 남한에 와서 생활한 지 8년여가 지났지만, 남한의 언론 매체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한자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²⁾ 이런 문제는 상대적이어서, 남한의 지식인도 북한에서만 사용되는 한자어를 접하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한자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현재 남한의 한글에서 한자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은 체언의 80%정도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런 한자어의 비중은 북한에서 조사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은 양쪽 모두 교육용 한자를 선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그 선정 기준도 다르고, 새롭게 한자어를 만드는 조어 방식도 다른 편이다. 따라서 같은 한자어이면서도 그 사용용례는 뜻에 따라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추구하는 한문교육관에서도 남북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의 한문교육관은 우리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머리말에 선명하게 노정된다. “우리말을 옳게 다듬어 쓰자고 하여도 한문을 알아야 하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자고 하여도 한문을 알아야 합니다. 한문공부를 잘 하는 것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³⁾ 이 서문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의 한문교과서가 추구하는 것은 교육 분야의 주력사업인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찬양과 우상화, 사회주의 혁명사상의 옹호, 전쟁과 관련된 내용 등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 일가가 한문교육 분야에 내린 교시와 사상, 혁명에 관한 지식 등이 한문교육의 내용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은 북한 한문교육의 특징이면서, 남한 쪽에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1) 김상홍 外 5인, 『남·북한 중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9.

2) 정종남,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 을지서적, 1999, p.6-7.

3)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상호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통일을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문생활의 격차를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기회가 온다면 상호협의를 통하여 공통의 준비과정을 거칠 때 보다 바람직한 남북한의 한문교육이 구성되고, 민족 화합 문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북한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은 아니다. 첫째 연구에 사용할 문헌자료의 활용에 제약이 있고, 둘째 북한교과서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연구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199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교과서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우선 북한 한문 교과서 및 한문 교육 정책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다. 안재철은 북한의 한문 교과서의 특징을 고려하여 북한 교과서에 반영된 학습 요소를 축출하여 체계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교육의 내용상 특징을 분석하여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교과서의 교육 내용 분석』⁴⁾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북한 고등중학교의 한문 교과서를 주된 분석 자료로 삼고, 북한 교과서에 수록된 재재, 제시된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북한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보다 다양한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추필식이 『북한 한문 교과서의 분석적 연구』⁵⁾에서 북한 고등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문 교과서의 변화 양상과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한문 교육방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통일 시대의 한문 교과서를 모색하였다는 점에 있

4) 안재철,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교육 내용 분석」, 『한자한문교육』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9.

5) 추필식, 「북한 한문교과서의 분석적 연구」, 『한자한문교육』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2.

다. 이외에 북한교과서 연구에는 안재철의 『북한의 한문 교과서 분석 연구』⁶⁾와 최호영의 『북한 한문 교과서 연구』⁷⁾가 있다.

또한 남·북한 한문 교과서를 분석하여 상호 차이점을 비교한 선행 연구가 있다. 안재철은 『남·북한 한자 교과서 분석 비교 연구』⁸⁾에서 남한에서 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되어 검정된 중학교 한문교과서 8종, 고등학교(I) 11종과 북한이 1995년에 발행한 고등중학교용 한문교과서 6권을 비교 연구하였다. 남·북한 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하는 한문 교육 내용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교과서에 수록된 한자와 한자어의 특성, 학습 요소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남북한의 초등교육용 한자에 대한 연구로는 김종운의 『남·북한의 초등 교육용 한자 비교』⁹⁾가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초등 교육용 한자의 비교를 통해서 기초 학문의 도구 교과인 국어와 한문 교과서에 나타나는 초등 교육용 한자와 한자어의 남북한 차이점을 살펴보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한문 교과의 언어 통일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 이방인도 초등한자교육의 비교연구인 『남·북한의 초등 한자교육 비교』¹⁰⁾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 한문교육학계의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한 『남·북한의 중등학교 한문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¹¹⁾가 이루어져 남북한 한문교육 비교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진재교는 어문정책의 입장에서 남북한의 한문교육 조망하였다. 특히 『북한의 어문정책과 한문교육』¹²⁾에서는 과거 북한에서 정권수립 후 한문을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으로 했던 어문정책과 1960년대 다시 한문

6) 안재철, 「북한 한문 교과서 분석 연구」, 『한자한문교육』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9.

7) 최호영, 「북한 한문교과서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8) 안재철, 「남북한 한문 교과서 분석 비교 연구」, 『한자한문교육』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1.

9) 김종운, 「남·북한 초등 교육용 한자 비교」, 『한자한문교육』1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3.

10) 이방인, 「남·북한 초등 한자 교육 비교」, 『한자한문교육』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9.

11) 김상홍외 5인 『남·북한 중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9.

12) 진재교, 「북한의 어문정책과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14, 2000.

교육을 강화시키기 된 배경과 과정을 규명하였다. 또 박종덕도 교육정책의 관점에서 『남·북한 한자·한문 교육 정책 비교 연구』를 제시하여, 남·북한의 언어 정책, 한자 표기 정책, 한자·한문 교육 정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남한에서는 인성 함양, 실용성 강화, 전통 문화 계승 등을 위해 한자·한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남한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일 기반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성과는 1992년, 1995년에 발행된 북한 한문 교과서 등을 토대로 북한 교과서를 분석하고, 남·북한 한문 교과서의 내용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 비교한 결과이다.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언어적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냄으로써 남·북한의 언어적 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남한의 경우,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집필되어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한문교과서 중 2종을 선정하였다.¹³⁾ 또한 북한 한문 교과서는 2001년도 발행한 고등중학교 한문교과서 6권 중 중학교 과정인 1~4학년, 4권을 선정하여 남·북한 한문교과서의 구성 유형을 비교하고, 북한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향

본고에서는 남북한 중학교 과정 한문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수행한다. 남과 북은 현재 양측 공히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초등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교육하는 초등 교육용 한자의 실체를 무엇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한자를 교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인된 초등학교 학령에 적합한 자료가 없다.¹⁴⁾

13) 선택한 2종의 교과서는 필자의 거주지역인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종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집필된 중학교 검정 한문 교과서 11종 가운데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 2종류¹⁵⁾와, 북한에서 2001년도에 발행한 중학교과정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조사 결과, 광주에서는 ‘동화사’에서 나온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44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교학사’에서 나온 교과서를 19개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지학사’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곳이 5개 중학교,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곳이 2개 중학교, ‘문원각’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2개 중학교, ‘포넷’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1개 중학교가 있다.¹⁶⁾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하여 광주지역에서는 ‘동화사’와 ‘교학사’의 한문교과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위 두 출판사의 교과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구체적인 분석의 대상은 남한의 경우 ‘동화사’와 ‘교학사’에서 출판된 중학교 1~3학년 한문교과서¹⁷⁾ 6권이다.

북한의 기본학제는 4-6-4(6) 학제이다. 인민학교가 4년, 고등중학교는 중등반 4년과 고등반 2년으로 모두 6년 대학은 4~6년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인민학교는 남한의 초등학교에 비교될 수 있고, 고등중학교는 남한의 중학교과 고등학교의 통합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본고는 중학교 과정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중학교 6년 과정 중 1~4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다.

북한의 경우는 남한이 11종 교과서인 것에 비해 1종류 뿐이다. 따라서 각 학년에 단일권의 한문교과서가 있을 때이다. 북한의 이러한 사정은 북한 교육기관 나름의 교수·학습 자료관 또는 한문 교육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상황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¹⁸⁾

14) 김종운, 「남·북한 초등 교육용 한자 비교」, 『한자한문교육』1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3.

15) 이상진·최상근·박장렬, 『중학교 한문 1, 2, 3』, 동화사, 2001 ; 윤미길·백원철·한성희, 『중학교 한문 1, 2, 3』, 교학사, 2002.

16) 특히 한문 교과가 없는 곳도 5개 중학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7) 이상진·최상근·박장렬, 『중학교 한문 1, 2, 3』, 동화사 ; 2001. 윤미길·백원철·한성희, 『중학교 한문 1, 2, 3』, 교학사, 2002.

본 연구에서 탐구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남북한 한문교과서의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 체재의 차이를 분석한다. 각각의 교과서를 구성하는 단원의 형태 및 교과서의 분량, 그리고 학년별 사용 한자의 분량 및 신습한자의 분량 등을 살펴보면서, 남북한 교과서의 특징을 부각시킨다.

II. 남북한 한문교과서를 구성하는 제재의 차이를 분석한다. 각 학년별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제재를 조사하여 남북한 한문교과서 구성의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남한의 경우는 대단원의 주제를 소단원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같은 대단원에 속해 있는 소단원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북한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나열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주제는 설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서로 어떠한 제재를 선택하여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분석한다면, 교과서를 통한 한문교육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III. 국한 혼용문이 主를 이루는 북한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학년별 내용 영역과 주요 양식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먼저 북한 한문교과서가 각 학년별로 어떤 주제로 구성되어있는지 살피고, 남한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들을 제시한다. 또한 국한 혼용문이 각 학년별로 어떤 주제나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남북한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문의 특색을 드러내고, 아울러 전통에 대한 재해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V. 남·북한의 분단 상황이 장기화되어 가는 노선에서, 가능한 한문교육 분야에서의 공통점을 발견하여 그 의의를 새기고, 또한 서로 다른 입장차이가 드러나는 분야를 상호 이해하고 수용하여 통일을 대비한 한문 교과서의 설계 방안을 모색한다.

18) 안재철,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교육 내용 분석」, 『한자한문교육』5, 한국한자 한문교육학회, 1999.

II. 체재 및 구성유형의 비교

교과서는 그 사회의 문화수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출판문화는 물론이고, 각 방면의 다양한 문화적 역량이 충출동하는 것이 교과서라고 생각된다. 남한의 경우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판형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색감도 다양하게 사용되어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교과서는 그 원본을 쉽게 손에 넣기 어려운 상황이라 구체적인 실물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복사본을 사용하고 있으며, 필자도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보았지만 2001년에 발행한 고등중학교 한문교과서의 복사본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런 한계적 상황에서 남북한 교과서의 외형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외형적 체재 및 구성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 한문 교과서의 체재

북한의 고등중학교에서 한문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1종류뿐이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1권씩 총 6권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교과서를 통하여 북한의 한문교육의 현황과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학습하는 교육용 한자 수는 중학교과정에서 1,500자, 고등학교과정에서 500자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학에서 1,000자를 더 학습하여 모두 3,000자 정도를 학습하고 있다.¹⁹⁾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의 중등 한문 교육용 한자가 1,800字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우리는 대학에서 한자를 강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약 1.7배에 해당하는 한자를 학습한다

19) 국립국어연구원, 『북한의 언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1992.

고 할 수 있다. 중학교 과정 교과서에서 사용한 한자 수는 1학년이 350여자, 2학년이 340여자, 3학년이 190여자, 4학년이 170여자로 약 1,100자 정도이다. 남한이 900字인것에 비해 북한이 200字정도 많다.

교과서의 분량은 1학년이 6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152쪽이고, 2학년이 5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123쪽이다. 3학년이 3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59쪽이고, 4학년이 26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71쪽이다. 1학년이 교과서의 분량이 다른 학년에 비하여 많은 이유는, 저학년일수록 수업시수가 많기 때문이다.

한 소단원은 약 1쪽에서 4쪽 정도로 이루어지지만, 일정하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한 소단원에서 학습하는 한자 수는 평균 1학년이 6자, 2학년은 5자부터 20자까지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지만, 평균으로 한다면 8자 정도이다. 3학년은 평균 6자, 4학년은 평균 8자 정도이다.

삽화는 1학년 교과서에만 보이고 있다. 이는 한자에 대한 보다 흥미로운 동기 유발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자의 짜임 중 형성문자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삽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어휘와 문장 중심인 2학년에서 4학년 교과서에는 삽화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교과서의 구성은 개별적 소단원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고등중학교년 교과서의 목차는 다음처럼 되어있다.

제一과. 한자의 점과 획

제二과. 요일을 가리키는 한자

제三과. 人, 口, 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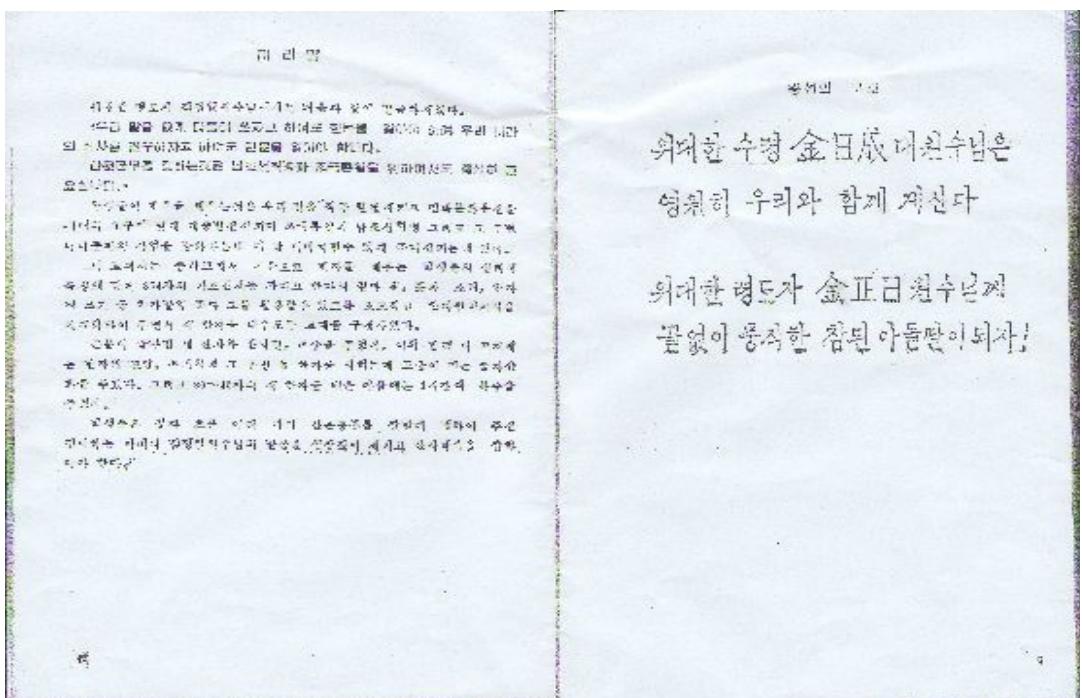
제四과. 山, 川, 谷…,

제五과. 복습1

위와 같은 형식으로 단독 소단원이 1학년 교과서는 62개의 소단원, 2학년은 52개의 소단원, 3학년은 32개의 소단원, 4학년은 26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남한의 한문교과서는 4~5개 정도의 소단원이 대단원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다. 각 소단원은 대단원의 학습목표와 방향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내용상 서로 연결되는 모양이다.

북한의 한문교과서에서 눈에 띠는 특징은 각 교과서에서는 소단원의 학습에 앞서 ‘머리말’과 ‘충성의 구호’를 다음 예시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1> 고등중학교 1학년 한문 교과서 ‘머리말’



위의 예시 부분의 ‘머리말’을 인용하여 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말을 옳게 다듬어 쓰자고 하여도 한문을 알아야 하며 우리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자고 하여도 한문을 알아야 합니다.

한문공부를 잘하는것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한문은 배우는것은 우리 말을 적극 발전시키고 민족문화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며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더 잘 이바지할수 있게 준비시키는데 있다.

학생들은 분과 초를 아껴 가며 한문공부를 잘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자학습을 잘하여야 한다.²⁰⁾

위의 머리말은 한문교육의 필요성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역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남한의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문교육의 목표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성향이다.

반면 주목할 것은 한문공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의 면이다. 첫째는 조국통일과 남조선 혁명이고, 둘째는 주변 나라들과의 사업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한문교육을 통하여 남북분단으로 야기되는 동질성의 파괴를 지양하고, 민족문화 유산을 현대에 알맞게 적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조국통일, 특히 남조선혁명을 수반하는 북측중심의 통일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한자문화권의 주변나라와의 교류관계를 확장하고 심화한다는 두 번째 목표는 우리의 교육과정과도 비슷한 성격이다.

이 북한의 한문 교과서는 중학교 입학하여 처음으로 한자를 접하는 학생들

20)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p.4(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의 심리적 특성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 즉 기초한자 354자를 점과 획, 뜻과 소리, 한자쓰기 등으로 구성하여, ‘한자말’²¹⁾의 뜻과 그것의 활용을 위한 초보적 한자원리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문은 한자와 한자말 또는 국한 혼용체로 된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본문의 말미에 ‘새한자’²²⁾와 ‘한자말’, ‘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자의 이해를 위한 ‘한자의 모양’과 ‘쓰기차례’가 제시되고, 더욱이 한자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글자삽화가 제시된다. 그리고 30~40자의 새 한자를 배운 다음에는 1시간씩 복습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머리말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충성의 구호’가 이어진다.

위대한 수령 金日成 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金正日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이 되자!²³⁾

‘머리말’에는 한문교육의 필요성과 교과서에 대한 설명과 학습태도가 제시되었지만, ‘충성의 구호’에서는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과 다짐의 말이 담겨있다. 이 문장 중에서 특히 ‘金日成’과 ‘金正日’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주목된다. 상징성이 강한 한자표기를 통하여 김일성 부자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 교과서의 소단원별 구성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다. 1학년은 소단원별로 한자·한자말을 위주로 구성하다가, 후반부의 ‘제52課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21) 북한 교과서에서는 ‘漢字語’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한자말’이라고 하고 있다.

22) ‘새한자’는 우리 남한 교과서의 ‘신습한자’ 또는 ‘신출한자’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23)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p.5(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명언' 부분에 이르러서 국한 혼용문이 등장한다.

《수령이 없는 革命의 승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忠臣의 삶은 永生이지만 간신의 목숨은 단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良心은 심장과 같다.》

《제 힘으로 사는 사람은 흥하고 남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死한다.》²⁴⁾

위의 문장은 국한 혼용체이면서 한자로 노출된 어휘는 제목으로 제시된 김정일과 관련 있는 것들이다. 반면에 2학년 교과서부터는 시작하는 소단원부터 국한 혼용체로 본문을 구성하고 있다. 즉 본문 속에 제시된 한자어를 익히는 형식이다.

국한 혼용체로 이루어진 본문의 내용은 대부분 김정일의 교시, 공산주의 이념,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전쟁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특히 소단원의 주제와 그다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말을 첨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눈에 띤다.

偉大한 領導者 金正日 元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民族은 인류 역사 발전의 려명기로부터 훌륭한 民族文化를 창조하여 왔습니다.》

우리 先祖들이 만들어 낸 측우기만 놓고 보아도 우리 나라 封建社會의 發展된 生產力과 文化를 알 수 있다.

측우기는 높이 2자(約 40cm), 직경 8치(約 16cm)의 통모양의 소그릇인데 一定한 場所에 놓고 비 오는 量을 재는 측정기구이다.

력사의 이른 初시기부터 철을 使用하여 온 우리 先祖들은 1441年 8月 世界에서 처음으로 주철측우기를 만들어 냅으로써 氣象學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²⁵⁾

24)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p.107(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북한 한문 교과서의 단원구성은 기본형은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련습’의 모습이다. 특히 1학년 교과서는 새롭게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년이기 때문에 한자말보다는 한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편이다. 1학년 교과서는 위의 기본구성 틀에 조금씩의 변화를 주어 다양한 학습내용을 짜 넣고 있다.

우선 기본틀의 모습은 첫 번째로 ‘본문 - 새 한자 - 한자의 모양 - 한자 쓰기 - 련습’의 구성이 기본이다.

우선 대표 예로써 1학년 교과서의 ‘제十三과. 心, 血, 骨…’의 단원을 살펴보자. 본문에는 심장과 사람의 뼈, 털, 뿐 등의 그림과 그와 관련된 한자가 제시되고, ‘새 한자’에는 ‘心 마음 십(심장), 骨 뼈 골, 角 뿔 각, 血 피 혈, 毛 털 모, 牙 어금니 아’라는 설명이 자리 잡고 있다. 다음의 ‘한자의 모양’ 부분에는 새 한자 6字가 쉽자가 실선이 그어진 한문 공책에 한자의 상하, 좌우 대칭을 이루어 가며 손으로 직접 쓰듯이 나타나 있다. ‘한자의 쓰기’ 부분에는 새 한자 6字의 필순이 나와 있다. 그리고 단원 평가라 할 수 있는 ‘련습’을 끝으로 기본 틀의 골격이 완성된다.

이런 기본틀을 준수하고 있는 소단원만 세어보아도 1과, 11과, 13과, 15과로 총 4개 단원이 있다.

둘째는, 기본틀에 ‘한자의 모양 변화발전’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日, 月, 山, 目’ 등 상형문자를 원래의 해, 달, 산 눈의 모양에서 점차 한자로 변화해 온 모습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돋고 있다. 이런 기본틀 변형은 2과, 3과, 4과, 6과, 8과, 9과, 10과, 16과의 9개 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기본틀에 ‘한자의 구성’을 추가하는 형태이다. 한자의 구성이란 예를 들어 ‘草’를 설명함에 ‘艸(艸) + 日 + 十’을 제시한다거나, ‘林’을 설명함에 ‘木(나무) + 木(나무)’를 제시하고, ‘男’을 ‘田(밭) + 力(힘)’의 육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단원이다. 이런 틀을 갖고 있는 소단원은 7과, 14과, 23과 3부분이다.

넷째, 기본틀에 ‘옛 글자모양’을 추가하는 형태이다. 여기서는 새 한자를 소개하며

25) 『한문(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01. p.25(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그 옛날 글자모양인 篆書를 제시한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자와 같은 글자 이면서 옛 모양의 한자를 통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함이다. 이런 단원은 17과, 18과, 19과, 22과, 27과, 30과, 32과, 34과로 8개 단원이 있다.

다섯째는 기본틀에 ‘옛 글자모양과 한자의 구성’을 첨가하여 기본 틀을 확장 발전시키는 유형이다.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단원은 21과, 24과, 25과, 26과, 29과, 31과, 33과, 36과, 37과, 39과, 40과, 42과, 44과, 45과, 46과, 48과, 49과, 50과, 55과의 20개 소단원이다.

다음은 기타로, 기본틀에 ‘한자의 肢字’를 추가하는 ‘제 三十八과. 主體’라는 소단원이 있는데, 體(몸 체)의 略字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한자 날글자만 학습하던 기본틀에다 한자대신 한자말을 첨부하는 단원이 6개 있다. 이들 소단원은 대부분 교과서의 후반부에 속하고, 52과, 53과, 54과, 57과, 58과, 61과이다.

또 기본 틀에 부수를 소개하는 소단원도 2개 있다. 59와 60과 두 개 단원이다.

고등중학교 2학년부터는 한자말이 학습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 1학년 교과서와 비교하여 변화된 것은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련습’ 구성이 기본틀이 된다는 것이다. 2학년부터는 ‘한자의 모양’과 ‘한자쓰기’와 같은 기초적 한자 학습은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된다. 즉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한혼용체의 한자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교육목표가 된다.

2학년 교과서의 기본틀은 1학년 교과서의 기본틀을 변형한 것이다.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한자의 구성 - 옛 글자모양 - 련습’의 형태를 따른 소단원은 무려 31개 단원이나 된다.²⁶⁾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본틀에 ‘한자부수의 모양’을 추가하는 있는 모습이다. 예를

26)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01, 1과, 2과, 3과, 5과, 6과, 8과, 9과, 10과, 13과, 14과, 16과, 19과, 22과, 25과, 26과, 28과, 29과, 31과, 32과, 34과, 35과, 37과, 40과, 41과, 43과, 45과, 46과, 48과, 49과, 50과, 51과 등 모두 31개의 소단원이다.

들면 ‘育 - 月(육달월)=肉(고기 육)²⁷⁾ 또는 ‘甚 - 甘²⁸⁾ 처럼 부수부분을 쉽게 찾을 수 없는 한자들이 제시되었다.

셋째는 기본틀에 ‘한자의 뢰자’를 추가한 것인데, 제20과에서는 ‘黨-党’을 소개하고 있다.

넷째는 기본틀에서 ‘한자의 구성’을 생략하여 간략한 체제를 구성한 것으로 23과, 34과, 30과 등이 속한다.

반대로 기본 틀에 ‘한자의 쓰기’가 추가 된 것이 있다. 2학년에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쓰기체제를 보완한 단원으로 36과, 38과 2개 단원이 있다.

3학년 교과서에서는 앞의 1, 2학년 교과서에 비교하면 확연하게 간략해진 구성 체제를 이루고 있다.

기본틀이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련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모습으로 구성된 단원이 무려 24개나 된다.²⁹⁾ 나아가 이런 기본틀에서 ‘한자말’ 영역조차도 생략한 것이 7과, 14과, 16과의 3개 단원이 있다. 그 밖에 기본틀에 ‘한자의 조성’을 첨가한 형태가 있다. ‘한자의 조성’은 1학년 ‘한자의 구성’ 영역처럼 육서를 설명하는 것과 같고, 25과 한 단원에서만 볼 수 있다.

4학년 교과서의 제1과는 ‘본문 - 새 한자 - 단어해석 - 문장분석 - 련습’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단어 및 문장해석은 첫 단원인 1과에서만 선보인다. ‘단어해석 - 문장분석’의 영역이 있는 ‘제 一과. 不滅의 송시³⁰⁾를 보면 김일성이 김정일의 50세 생일을 맞아 쓴 시 한 편과 시를 쓰게 된 이유를 교시한 내용이 본문에 기재되어 있다. ‘단어해석’은 시 안의 한자어 2~3자를 직역해 놓았다. ‘문장분석’은 詩를 한 구씩 의역해 놓았는데 특이하게 시적운율을 높일 수 있게 의역하는 방법까지

27) 『한문(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01, p.9.

28) 『한문(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01, p.84.

29)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2001, 1과, 2과, 3과, 4과, 5과, 8과, 9과, 10과, 11과, 12과, 13과, 17과, 18과, 19과, 20과, 21과, 22과, 23과, 26과, 27과, 28과, 29과, 30과, 31과 등 모두 24개의 소단원이다.

30) 『한문(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2001, p.2.

서술해 놓았다.

2과에서 25과까지의 기본틀은 ‘본문 - 새한자 - 한자말 - 련습’이다.

북한 한문교과서의 매 단원의 마지막을 맷고 있는 ‘련습’ 영역은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 되어 있다. 학생들이 본문에서 학습했던 한자·한자어, 또는 국한 혼용문을 읽고, 쓰고, 뜻을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북한 한문 교과서 단원 구성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북한 한문 교과서 단원 구성 유형

학년	단원 구성 유형
고등중학교 1학년	본문 - 새 한자 - 한자의 모양 - 한자의 쓰기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의 획 - 한자의 모양 - 한자모양의 변화발전 - 한자의 쓰기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의 모양 - 한자의 구성 - 한자의 쓰기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의 모양 - 옛 글자모양 - 한자의 쓰기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의 모양 - 옛 글자모양 - 한자의 구성 - 한자의 쓰기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의 모양 - 옛 글자모양 - 한자모양의 변화발전 - 한자의 구성 - 한자의 쓰기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의 모양 - 옛 글자모양 - 한자의 략자 - 한자의 쓰기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한자의 모양 - 옛 글자모양 - 한자의 구성 - 한자의 쓰기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한자의 모양 - 옛 글자모양 - 한자의 부수 - 한자의 쓰기 - 련습

고등중학교 2학년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한자의 구성 - 옛 글자모양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한자의 구성 - 한자부수의 모양 - 옛 글자모양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한자의 구성 - 한자의 랙자 - 옛 글자모양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옛 글자모양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한자의 쓰기 - 한자의 구성 - 옛 글자모양 - 련습
고등중학교 3학년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련습
	본문 - 새 한자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한자의 조성 - 련습
고등중학교 4학년	본문 - 새 한자 - 단어해석 - 문장분석 - 련습
	본문 - 새 한자 - 한자말 - 련습
	본문 - 새 한자 - 련습

2. 남한 한문 교과서의 체재

남한의 중학교 한문 과목의 목표³¹⁾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다. 둘째, 한자어를 바르게 읽고 쓰며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셋째, 간이한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른다. 넷째,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다섯째,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3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한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160.

태도를 지닌다. 이러한 목표 아래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집필되어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한문교과서는 11종이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동화사’와 ‘교학사’ 두 권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의 중학교 한문 교과서는 3권으로 구성된다. 학년, 레벨에 따라 1, 2, 3권을 순서대로 학습하는 경우가 있고, 3권 중 1권이나 2권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조사해 본 결과 광주 지역에서 학년별로 세 권 모두 학습하는 곳이 38개 중학교, ‘한문 1, 한문 2’ 두 권으로 학습하는 곳이 14개 중학교, ‘한문 1, 한문 3’ 두 권으로 학습하는 곳이 5개 중학교, ‘한문 2, 한문 3’ 두 권으로 학습하는 곳이 12개 중학교, ‘한문 1’ 1권으로 학습하는 중학교는 5개 중학교, ‘한문 2’ 1권으로 학습하는 곳이 4개 중학교, ‘한문 3’ 1권으로 학습하는 곳이 2개 중학교로 조사되었다. 반면 북한은 각 학년별 1권씩 4학년까지 4권을 중학교 전 과정에서 모두 학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남한 교과서의 첫 장을 살펴보면,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 다양한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고 학습에 관련된 쪽수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흥미 유발을 하고 있다.

남한 한문 교과서의 특징은 대단원 구성 체제이다. 남한 교과서는 4~5개의 소단원이 모여 대단원을 이룬다. 북한 교과서가 한 소단원 당 1~4쪽으로 일정치 않은 것에 반해 남한 교과서는 소단원에 일정한 쪽수가 있다. ‘동화사’ 1, 2, 3학년 과정 모두 소단원은 4쪽으로 구성되고 있다. ‘교학사’ 역시 1, 2, 3학년 소단원마다 학습하는 쪽수가 4쪽이다. 하나의 소단원에서 배우는 한자는 ‘동화사’는 1, 2, 3학년 모두 14~15자로 일정하였다. ‘교학사’ 또한 12~16자로 비슷하였다. 북한의 한문 교과서는 소단원의 課 제목을 주제로 한 국한문 혼용체가 문장 식으로 엮어서 하나의 문단이 본문을 이루고 있다. 남한의 교과서는 소단원과 관련한 한자·한자어를 제시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고등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경우 소단원 별로 배우는 한자가 5~20자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남한은 소단원 별로 배우는 한자수가 거의 균일하다.

대단원의 구성은 ‘동화사’는 전체 교과서가 5~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학사’는 4~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단원으로 구성되고 소단원의 학습을 통해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대단원의 구성은 처음에 대단원 名 및 대단원 소개와 단원 학습 목표로 되어있다. 대단원 名은 생활, 가족, 자연, 등을 통해 학습자에게 한자에 대한 이해를 돋고 더 나아가 선인들의 삶과 지혜에 대한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 주로 많았다. 대단원의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그 단원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제시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단원 안의 소단원은 학습자가 차시마다 학습하여 할 부분이다. 소단원에서도 역시 학습 목표가 있어, 소단원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동화사는 ‘학습의 주안점’이라 하였고 교학사는 다른 이름 지음 없이 상단에 제시되어 있다.

중학교 한문 교과서 2종의 외형적 체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남한 한문교과서 단원 구성 유형

교과서 \ 영역	대단원 수	소단원 수	부록 수	쪽 수
동화사 중학교 1	5	22	5	127
동화사 중학교 2	6	22	5	128
동화사 중학교 3	6	22	5	128
교학사 중학교 1	5	16	5	128
교학사 중학교 2	4	16	6	128
교학사 중학교 3	4	16	6	128

‘동화사’에서 나온 교과서는 1학년은 주로 한자와 2~4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를 익히도록 되어 있다. 2학년은 1학년보다 난이도가 높아졌을 뿐 한자어를 학습하는

단원이 대부분이다. 3학년은 짧은 문장이나 성어, 한시로 구성되어 있다.

‘교학사’에서 나온 교과서 역시 ‘동화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학년은 한자와 한자어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2학년은 한자어와 성어 학습이 主를 이룬다. 3학년은 짧은 문장에서부터 한시, 문단 형식의 장문을 학습한다.

‘동화사’에서 출판된 한문 교과서의 단원 구성 유형은 ‘본문 - 새로 익힐 한자 - 본문 연구 - 한 걸음 더 - 바르게 읽고 쓰기 - 확인학습’이다. ‘본문 연구’ 영역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한자를 예로 한 육서의 설명, 한자 획순, 한자의 부수, 병렬·수식·주술 등 한자어의 짜임, 반의어, 한자어 풀이, 한자어 풀이하는 순서, 한시가 수록된 단원에서는 시구의 시의 형식, 풀이, 작품의 감상 등 단원에 따라 학습하는 내용이 大同小異하였다. ‘한 걸음 더’ 영역은 ‘본문 연구’보다 심화 학습 부분이다. 예를 들어 ‘相(상) ① 서로 相見(상견) : 서로 만나 봄. ② 재상 名相(명상) : 이름난 재상.’³²⁾과 같이 본문에서 제시된 한자 중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또한 ‘생활 한자어의 활용’이라 하여 학습한 한자로 문장을 제시하여 이해를 돋고 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영역은 ‘患 (환) 근심 病患(병환) 과 忠 (충) 충성 忠直(충직)’³³⁾과 같이 혼돈하기 쉬운 한자들을 나열하여 비교할 수 있게 해 놓았다. ‘확인 학습’은 단원을 마치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 및 복습해 보는 영역이다.

‘교학사’에서 출판된 한문 교과서는 ‘본문 - 새로 나온 한자 - 탐구하기 - 스스로 확인하기’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탐구하기’ 영역은 육서 설명, 한자의 획순, 상대자, 비슷한 한자 등을 제시해 놓았는데, ‘동화사’ 교과서의 ‘본문연구’와 ‘한 걸음 더’ 이 두 영역을 섞어놓은 것과 같다. ‘스스로 확인하기’는 ‘동화사’의 ‘확인학습’ 영역과 같다. 특히 ‘교학사’는 각각의 소단원이 끝나는 다음 페이지에 ‘이야기를 통한 한자 익히기’가 1쪽을 구성하여 사자성어나 우리나라 유물, 유적지 등을 이야기 형

32) 이상진 · 최상근 · 박장렬, 『중학교 한문 1』, 동화사, 2001. p.18.

33) 이상진 · 최상근 · 박장렬, 『중학교 한문 1』, 동화사, 2001, p.98.

식으로 구성하여 한자를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남한의 교과서와 북한의 교과서 모두 ‘련습’, ‘확인학습’, ‘스스로 확인하기’ 등 이름만 다를 뿐,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영역이 있는 것은 동일하다.

한편, 남한의 한문 교과서는 매 단원의 끝에 ‘확인학습’ 등 복습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런데 북한 한문 교과서는 단원에 속해있는 복습 영역인 ‘련습’ 이외에 배우는 한자수가 30~40자가 될 때쯤 ‘복습 1, 복습 2, 복습 3…’이라는 단원을 따로 두었다. ‘복습’은 김일성이나 북한 영웅들의 일화를 국한문혼용체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읽는다던지 나열된 한자어 읽기, 한글을 한자로 쓰기 및 한자의 뜻 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학년 교과서 ‘제 五 과. 복습 1’에 보이는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존함을 한자로 정중히 쓰시오.’³⁴⁾ 문제는 특이사항이다. 1학년과 2학년은 10번의 ‘복습’을, 3학년은 4번, 4학년은 3번을 구성해 놓은 점이 남한과 북한 교과서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한문 교과서는 육서의 설명, 획순, 약자 등 기초적인 설명은 1학년 교과서에 주로 하였고, 3학년과 4학년 교과서에는 주로 본문 제시와 과 신습한자, 한자어를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면 남한의 교과서는 학년 전체적으로 매 단원마다 기본틀을 유지하며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즉, 1학년 교과서 한 단원에서 ‘한자의 짜임’이 제시되었더라도 3학년 교과서 한 단원에서 한자를 바꾸어 ‘한자의 짜임’이 다시 제시된다. 이런 점 역시 남한과 북한 교과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4)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p.16(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III. 북한 한문교과서 내용 분석

1. 학년별 제재

남한의 교과서는 4~5개의 소단원이 모여 1개의 대단원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소단원끼리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 개의 소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나 한자어는 소단원명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 중학교 한문교과서는 소단원(課)체재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소단원끼리는 전혀 관련이 없다. 소단원은 다시 ‘본문’과 ‘련습’으로 2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한 소단원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약 1쪽에서 4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쪽수 배당 및 소단원의 구성은 학습자의 학습과정이나 학습 효과를 배려한 것이기 보다는 제한된 쪽수에 의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북한의 교과서가 추구하는 목표는 우선 공산주의적 혁명을 위한 인재양성에 있다. 그를 위하여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김일성 부자의 혁명적 풍모와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가르치는 것을 일차적 목표를 삼고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³⁶⁾

이번 3장에서는 각 학년별 한문 교과서가 어떤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아울러 본문에 실린 한자 및 한자어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등중학교 1학년 한문 교과서

고등중학교 1학년 한문교과서는 52개 소단원과 10개의 복습, 총 62과로 이루어져 있다. 2학년 교과서부터는 차례에 표기된 단원명이 ‘第一課’와 같이 모두 한자로

35) 안재철, 「남북한 한문 교과서 분석 비교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1.

36) 안재철, 「북한 한문 교과서 분석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9.

구성되어 있다. 반면 1학년 교과서의 단원명은 ‘제 一과’처럼 숫자를 나타내는 부분만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고등중학교 1학년 한문 교과서는 남한의 학제인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고등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한자를 처음 접하는 교과서이다. 때문에 1학년 교과서 첫 소단원은 남한에서와 같이 한자의 기본이 되는 ‘점과 획’부터 학습하기 시작한다. 주로 새 한자와 한자말을 학습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남한 교과서와 비슷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고등중학교 1학년 한문 교과서의 일반적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모든 소단원에 ‘새 한자’라는 코너를 두어 본문에서 새로 배우는 한자의 음과 훈을 제시하고, ‘련습’을 두어 그 시간에 배운 ‘새 한자’를 완벽히 익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새 한자’, ‘련습’ 등의 명칭만 다를 뿐, 남한의 교과서와 유사한 형태이다.

둘째, ‘한자의 점과 획’, ‘한자의 모양’, ‘한자의 쓰기’를 두어 한자를 쓸 때 정확한 획순과 예쁜 글씨체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한자 바르게 쓰기’를 두어 점과 획, 모양, 획순을 한 번에 지도하는 반면, 북한은 각각 구성 체제를 다르게 두어 지도한다는 점이 대동소이하다.

셋째, 한 소단원에서 배우는 한자 중 1~2자 정도를 선택하여 한자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를 <표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4> 북한 한문 교과서 ‘한자모양의 변화발전’³⁷⁾

한자모양의 변화발전							
鳥	鳩	鳩	鳥	鳥	𠂊	鳥	鳥
魚	𩷶	𩷶	𩷶	𩷶	𩷶	𩷶	𩷶

37)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p.24.

넷째, 한자를 읽을 때 위치에 따라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들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한자에는 《六》이나 《十》처럼 두가지 소리로 발음되는 글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六十》일 때의 《六》자는 《류》이라고 읽지만 《六월》일 때의 《六》자는 《류》라고 읽습니다. 《十》자도 《二十》에서는 《십》으로 읽고 《十월》에서는 《시》로 읽습니다. 《六》이나 《十》과 같은 수자가 달을 가리키는 말일 《월》과 무어 지면 각각 그 발음이 《류》, 《시》로 변합니다. 우리모두 이런 경우를 기억해 둡시다.³⁸⁾

남한의 경우 두음법칙과 같은 사항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본문을 설명할 때, 첨부하여 말로 설명해주곤 한다. 이에 반해 북한은 교과서에 글로 실어 놓았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실생활에서 생활 한문으로 사용할 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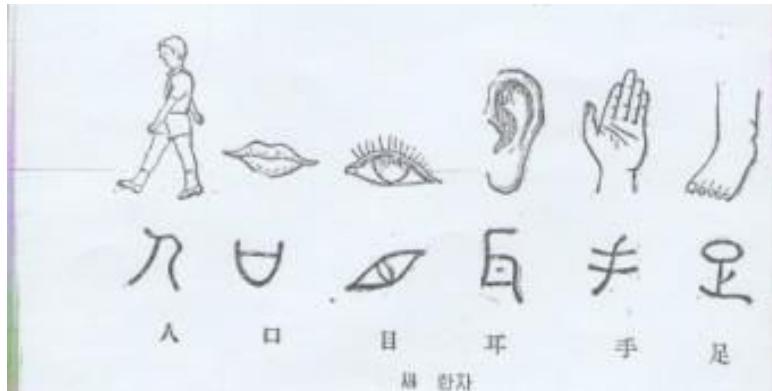
다섯째, 본문이 상형, 회의자로 이루어진 소단원³⁹⁾, 또는 본문에 제시된 한자와 관련된⁴⁰⁾ 삽화를 제시하여 한자를 처음 접하는 1학년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고 있다. 남한의 경우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에 학생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한자나 한자어에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싣는 반면 북한 교과서는 오직 1학년 교과서에서만 삽화를 찾아볼 수 있다.

38)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p.9(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39)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2과, 3과 4과, 7과, 8과, 9과, 10과, 11과, 13과, 14과, 15과, 16과, 23과 등 모두 13개의 소단원이다.

40)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29과, 34과, 36과, 43과, 45과, 49과 등 모두 6개의 소단원이다.

<표 5> 북한 한문 교과서 삽화41)



여섯째, 다른 과목에서 다루는 용어를 한자로 배움으로써,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데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⁴²⁾ ‘제 四十六과. 수학, 물리용어’를 살펴보면 수학, 물리 과목에 필요한 용어들을 한 소단원의 본문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角	分母	分子	三等分	等式	合
此				重力中心	

일곱째, 남한의 경우 한자의 모양이 비슷하다거나, 동음이의어인 한자어를 학습하는 경우 또는 한자 쓰는 방법 등은 본문이 아닌, 본문을 통하여 배운 한자들을 좀 더 심화 있게 배우는 ‘탐구하기’와 같은 란을 두어 따로 학습하게 한다. 반면 북한 교과서는 각각 소단원으로 독립하여 학습하게 하였다.⁴³⁾ 예를 들면 다음과 같

41)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3과 등 모두 1개의 소단원이다.

42)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46과 등 모두 1개의 소단원이다.

43)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18과, 19과, 21과, 30과 등 모두 4개의 소단원이다.

다.

土 - 土
人 - 入 - 八
刀 - 力
心 - 必
田 - 由 - 甲 - 申

여덟째, 한자의 원리를 다루는 소단원이 있다. 그런데 전시학습에서 이미 회의자, 형성자에 대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여 한 소단원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제 二十三 과. 회의한자’, ‘제 二十四 과. 형성한자(1)’ 등의 소단원에서 회의자, 형성자를 학습한 뒤에 ‘제 二十七 과. 한자가 만들어 진 원리’라고 하여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의 원리를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홉째, 고장이름이나 산, 강 이름, 즉 고유 명사를 배우는 소단원⁴⁴⁾이 있다. 우리나라 지도에 지역名을 한자로 표기함으로써 지역을 정확히 한자로 쓸 수 있게 지도하였다. 더불어 그 지역이 우리나라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한자와 지리 공부를 함께할 수 있게 하였다. 남한 교과서에서는 단위 행정구역 배우는 소단원이 있어 ‘市, 郡, 區’ 등을 학습한다. 이에 반해 북한은 지역名을 한자어로 배우고 더 나아가 위치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다.

44)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33과, 42과 등 모두 2개의 소단원이다.

<표 6> 북한 한문 교과서 ‘제 四十三 과. 산과 강이름’



열째, 남한의 교과서에서 소단원이 끝난 복습 부분에 주로 배운 한자를 써본다거나 읽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교과서는 ‘련습’에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배운 한자를 넣어 작문을 하여 한자의 활용을 얼마나 잘 하는지 알아보는 문제가 있다.⁴⁵⁾

45)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4과 등 모두 1개의 소단원이다.

(예 : 다음 한자말을 넣어 국한문으로 된 짧은 글을 지으시오.
山川, 火田)

또한 한자와 자리 문제를 혼합하여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⁴⁶⁾

(예 : 다음 고장이름을 한자로 쓰고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시오.
길림, 연길, 장백)

이는 한자를 실생활에 활용할 때,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상의 일반적 양상을 통하여, 북한 한문 교과서와 남한 한문 교과서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한문 교과서에서의 한자 학습은 생활에 사용하는 實例를 염두에 두고 구성되어 있다. 특히 두음 법칙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유월’, ‘시월’이라고 실생활에서 제대로 읽을 수 있게 지도하고 있다. 또한 동음이의어를 혼동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 코너로 마련하였다. 고유명사를 한자로 공부하게끔 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한자가 모국어인 중국과 가까이 위치한 북한 역시 실생활에서 한자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하여 한자문화권의 반열에 합류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한문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국한 혼용문을 통해 한자어를 학습해 간다는 점이다. 1학년 교과서는 후반부인 52과부터 53과, 54과, 57과, 58과, 59과, 60과, 61과 끝부분까지 8개의 소단원에 국한 혼용문을 제시하여 문장 안에서 한자나 한자어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46)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33과 등 모두 1개의 소단원이다.

국한 혼용문을 제시한 각각의 소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과에서는 ‘위대한 領도자 金正日 원수님의 名言’이라는 제목下에 김정일이 말한 5개의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革命, 忠臣 등의 한자어를 노출함으로써 북한 사상을 엿볼 수 있다. 53과에서는 ‘충성의 맹세’라고 하여 金正日, 金日成 父子에 대한 충성을 다하자는 구호가 제시되고 있다. 54과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司令官同志의 革命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항일 革命 투쟁시기에 하신 귀중한 말씀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경애하는 金日成 大元帥님의 革命사상을 옹호보위하는 것을 共產主義자의 가장 영예롭고 숭고한 의무로 여기시고 自身의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경애하는 金日成 大元帥님의 신변安全을 목숨으로 지켜 내시였다.

우리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 발휘한 숭고한 首領 결사옹위정신을 본 받아 언제 어디서나 偉大한 領도자 金日成 大元帥님을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⁴⁷⁾

이는 항일투쟁에서 김정일을 지켰다는 내용의 국한 혼용문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司令官同志, 革命, 金日成 大元帥, 共產主義 등 북한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어휘만을 한자어로 표기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 57과는 “축복의 노래”라 하여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노래 가사를 썼고, 58과는 항일 투쟁을 결친 김일성의 우상화, 59과에서는 祖國이 곧 김일성이라고 하며 역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60과는 김일성의 교시문을 들어 등산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 61과 역시 김정일의 교시문과 함께 통일에 관한 집념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47)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p.110(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북한 한문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인 국한 혼용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내용에 합당한 한자어를 노출시켰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와 관련한 고유명사 역시 한자어로 노출시켰다. 이 밖에 국한 혼용문의 주제와 관련된 사항은 뒷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2) 고등중학교 2학년 한문 교과서

고등 중학교 2학년 한문교과서는 42개의 본문과 10개의 련습, 총 52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등 중학교 1학년 한문교과서에는 소단원 제목을 ‘제 一과’, ‘제 二과’ … 등과 같이 숫자만을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 반면 2학년 교과서부터는 ‘第一課’, ‘第二課’ …처럼 소단원 名을 모두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

2학년 교과서는 첫 소단원부터 국한 혼용문으로 시작한다. ‘第四十課. 漢字成句’라는 한 개의 소단원만 제외하고, 모두 국한 혼용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소단원인 ‘第一十課. 偉大한 領도자 金正日元帥님의 名言’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줄로 된 본문은 한 쪽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한 혼용문은 총 1개의 한자와 17개의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은 역시 김일성의 명언으로 이루어진 국한 혼용문이다. ‘새 한자’와 ‘한자말’, 그리고 ‘한자의 구성’란을 두어 ‘言’의 부수를 통한 한자의 활용을 학습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구성은 고등 중학교 1학년 교과서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고등중학교 2학년 한문 교과서의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학년 한문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었던 ‘한자의 모양’, ‘한자의 쓰기’의 기초 단계는 자취를 감추었고, 한자어에 관련된 삽화도 일체 보이지 않는다. 소단원마다 ‘한자의 구성’이라는 코너를 설치하여 한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우선 형성자의 예로 ‘星(별 성)’인 부분을 살펴보자. 뜻 부분인 ‘日(해 일)’과, 음 부분인 ‘生(날 생)’으로 설명한다. 특히 ‘星(별 성)’의 음인 ‘성’은 ‘生’의 음이 ‘생→

성'으로 변환한 것을 제시해 주었다.

星 - 日(뜻-해, 날), 生(소리-생→성)

다음은 회의자인 ‘料(헤아릴 豆)’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米(쌀 미)’의 뜻과 ‘斗(말 두)’의 뜻이 합하여 ‘料(재료 豆)’가 되었음을 나타내었다.

料-米(뜻-쌀), 斗(뜻-말)

위와 같이 한자 구성 중 형성자, 회의자에 관한 부분을 말로 설명하기 보다는 도식화시키고 있다. 이는 1학년 한문교과서보다 간략히 제시하는 방법이다.

둘째, ‘第十課. 기초 漢字’에서는 ‘홀자’, ‘겹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즉, ‘日·月·山·川’과 같이 ‘獨體’로 된 것과 ‘獨體’를 합하여 만든 ‘江·信·林’과 같은 ‘合體’를 각각 ‘홀자’와 ‘겹자’라 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기초한자’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초漢字란 겹자를 이를 때 해당 겹자의 바탕에 놓여 뜻과 소리, 모양에 기초적인 作用을 하는 글자를 말한다.

기초漢字에는 홀자로 된것도 있고 겹자로 된것도 있는데 부수漢字들은 大體로 홀자로 된 기초漢字이다.

(중략)

기초漢字는 이처럼 뜻, 소리, 모양에서 겹자를 이루는 바탕에 놓여 있다⁴⁸⁾.

48) 『한문(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01. p.19~20(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셋째, 하나의 소단원이 우리나라 역사적 상징물에 대한 설명문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있다.⁴⁹⁾ ‘第十三課. 개선문’이란 소단원에서는 개선문의 건설에 관여한 金正日에 대한 찬미와 개선문을 대하여 하는 자세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정작 개선문을 한자어로 표기하지 않고 있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넷째, 국·한 혼용문 중에서 혁명투사의 시를 인용하여 그 시를 감상하면서 한자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⁵⁰⁾. 남한에서는 주로 중국 당나라 시대의 유명 시인이나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의 漢詩를 싣는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항일 운동에 투신 하였던 혁명투사의 시를 실어 학습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太平洋과 大西洋의 無限한 물은
山谷間의 적은 물이 會合함이요
우리들의 적은 知識 발달하기는
千辛萬苦 지난후에 能히 하리라
青年들이 가는 앞길 泰山과 같이 힘하다
苦生함을 락심 말고 나아갈 때에
青年들아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용진용진 나아가세 文明부강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先生님의 詩 《전진가》 中에서)⁵¹⁾

혁명투사 김형직(1894-1926)은 김일성의 아버지로 항일 독립운동 활동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룬 뒤 만주로 망명하였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아내인 강반석과 함께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라’로 추앙받은 인물이다. 이런 항일 운

49)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01. 13과, 14과 등 모두 2개의 소단원이다.

50)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01. 16과, 25과 등 모두 2개의 소단원이다.

51) 『한문(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01. p.28(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동가의 시를 실어 학습케 한다는 점은 매우 상이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1학년 교과서에 이어 2학년 교과서에서도 한자 부수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미 ‘한자부수의 모양’ 코너를 두어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부수를 처음 접하는 것처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자를 이루는 기본 요소라는 개념으로 부수를 설명한다. 이 기본 요소인 한자 부수는 대체로 상형자나 지사자들로 구성된다. 특히 이 기본 요소들은 겹자로 된 한자의 뜻부분과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여섯째, ‘第三十課. 《알겠습니다!》’라는 소단원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忠臣들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한다. 상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전달받든지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본문을 통해 정신 교육을 하기 위한 소단원이다.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의 對答에 革命戰士의 革命的信念과 義理, 忠實性이 集大成되어 있다. 이것은 忠臣들만이 할 수 있는 對答이다.

(중략)

金日先生님은 偉大한 首領님께서 주시는 課業에 對해서는 그것이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알았습니다!》라는 한마디 말로 받아 들이고 無條件 집행하였다.

일곱째, 북한 교과서에서도 사자성어는 중요한 학습 내용이다. 학습 방법은 본문에 사자성어를 제시하고 다시 연습 부분에서 국한문 혼용체를 통하여 학습한 한자성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極惡無道, 暴惡無道

水陸並進, 百折不屈

련습.

1. 다음글을 읽으시오
- 7) 極惡無道한 米帝侵略者들의 죄행
- 8) 暴惡無道한 地主, 資本家們들의 만행
- 10) 水陸並進하는 革命精神
- 11) 百折不屈의 革命精神⁵²⁾

본문에는 위에 제시한 인용문 외에 ‘朝變夕改’, ‘甘言利說’, ‘衆口難防’, ‘前人未踏’, ‘前古未聞’, ‘時時刻刻’, ‘正正堂堂’ 등 7개가 더 제시되어 있다. 특히 필자가 인용한 부분은 남한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사자성어의 예시이다.

본문의 ‘水陸並進(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나아감)’은 남한에서는 거의 배우지 않는, 군사행동을 할 때에 쓰일법한 사자성어를 학습한다는 점과 ‘련습’의 ‘1-7) 極惡無道한 米帝侵略者들의 죄행’과 같이 反美 감정이 고스란히 교과서에 수록된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등중학교 3학년 한문 교과서

고등 중학교 3학년 한문교과서는 28개의 본문과 4개의 련습, 총 32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학년일수록 수업시수가 적기 때문에 고등중학교 3학년 한문교과서는 1학년 한문교과서의 $\frac{1}{3}$ 정도의 분량이다.

3학년 교과서 역시 첫 소단원부터 국한 혼용문으로 시작하여 28개의 본문이 모두 국한 혼용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이 1페이지 이상을 차지하여 2학년 교과서

52) 『한문(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01. p.76~77(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에 비해 본문의 학습 양이 확연히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상의 구성에서 다른 학년의 교과서 내용에 보이는 혼용문의 시나 漢詩, 사자성어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3학년 교과서 전체 소단원의 내용인 국한 혼용문은 1, 2학년의 국한 혼용문 내용과 비슷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양, 공산주의 체재 옹호, 革命에 관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다.

고등중학교 3학년 한문 교과서의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학년 한문 교과서에서 소단원마다 주로 다루었던 ‘한자의 구성’, ‘옛 글자 모양’은 더 이상 제시되지 않고, 삽화 역시 일체 보이지 않는다. 소단원은 ‘본문’과 ‘새 한자’와 ‘한자말’을 익히고 ‘련습’을 통하여 배운 한자들을 복습하게 하였다.

또한 2학년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형성자, 회의자에 관한 설명이 보다 심화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第七課. 漢字의 部分的소리와 총체적소리’라는 소단원에서는 ‘部分적 소리’와 ‘총체적 소리’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대한 설명이 있다.

漢字의 部分的 소리와 총체적 소리에 對한 問題는 형성漢字에서만 특수하게 제기된다. 部分的 소리란 형성漢字에서 소리를 담당한 기초漢字의 소리를 가리키는 말이며 총체적 소리란 그 漢字가 나타내는 소리를 말한다.

형성漢字에서 총체적 소리와 部分的 소리는 大體로 같거나 비슷하지만 歷史的인 語音變化에 의하여 모든 형성漢字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部分的 소리와 총체적 소리가 꼭 같은 경우 :

攻 — 工 《공》 住 — 主 《주》

部分的 소리와 총체적 소리가 비슷한 경우 :

銃 — 充 《총 — 총》 積 — 責 《책 — 적》

이와 같이 형성漢字에서 部分的 소리와 총체적 소리가 絶對多數 같거나 비슷한 事情은 형성漢字가 漢字총수의 80%以上을 차지하므로 漢字學習에 有利한 條件으로 된다.⁵³⁾

전체 한자 중 80% 이상은 형성자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형성자의 음 부분을 추측할 수 있으면 학습하지 않은 한자라 할지라도 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한문 학습 방법 중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는 형성자의 음 부분을 ‘부분적 소리’, 형성자의 전체 음을 ‘총체적 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부분적 소리’와 ‘총체적 소리’가 같은 경우와 변형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교사가 말로만 설명할 뿐,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는 부분이다. 북한 교과서와 같이 자세한 설명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면, 교사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의 학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둘째, 1학년 교과서에 ‘제 四十六과. 수학, 물리용어’라는 소단원에서는 타 과목에서 다루는 용어를 한자어로만 제시하였다. 3학년 교과서에 수학교과서에나 있을 법한 ‘第 十二課. 三角形과 角’이라는 소단원이 있다. 여기서는 ‘삼각형’과 ‘각’ 등 수학

53) 『한문(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2001. p.10~11(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용어에 대한 설명을 국한 혼용문으로 제시하였다. 수학 용어에는 한자말이 많으므로 한문학습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⁵⁴⁾ 또한 ‘第 二十八課. 肝의構造와 機能’ 역시 생물시간에 접할 수 있는 신체 일부인 ‘간’에 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⁵⁵⁾ 이런 수학과 자연 과학에 관한 용어를 한자로 학습하게 되면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의 개념 규정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正字와 略字를 학습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단원이 있다.⁵⁶⁾ 우선 남한, 일본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는 약자부터 학습한 다음, 中國에서 쓰이고 있는 略字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다른 나라와의 交流를 위한 正字와 略字의 학습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 정자만을 사용한다. 정자만 알아서는 한자문화권에서의 교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도 남한과 같이 한자 문화권 내의 교류를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학습내용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넷째, 남한에서는 한자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육서와 함께 한자 모양(形), 소리(音), 뜻(義) 즉, 한자의 3요소를 배우고 더 이상 상급학년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 북한에서는 前학년 교과서에 이미 삼요소를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학년 교과서에서 마치 처음 접하는 것처럼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3학년 교과서에 설명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54) 『한문(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2001. p.17.

55) 『한문(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2001. p.40.

56)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2001. 14과 등 모두 1개의 소단원이다.

漢字는 뜻글자로서 소리글자와는 달리 글자모양과 글자의 소리를 가질 뿐 아니라 글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 세가지 要素로 이루어 졌다.

《享》과 《亭》, 《郡》과 《群》, 《地》와 《池》처럼 모양이 비슷하면서 소리가 서로 다르거나 같은 경우에도 뜻은 모두 서로 다르다.

《高》, 《尊》, 《崇》과 《有》, 《存》에서 보는 것처럼 뜻이 같은 경우에도 그 뜻빛깔에서는 差異를 가지며 글자모양과 소리는 서로 다르다. 漢字의 세 要素는 互相 밀접히 련관되어 있다.

그리고 《開》와 《閉》, 《地》와 《池》, 《尊》과 《高》, 《崇》에서처럼 모양이 비슷하거나 뜻이 같은 경우, 더우기 읽고 쓰는 연습을 많이 하여 뜻과 소리, 모양의 세 要素를 똑바로 기억하여야 한다.

한자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모양이 비슷한 한자, 음이 비슷한 한자, 뜻이 비슷한 한자 등이 있어 학습하기가 어렵다. 위의 예문은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국한 혼용문을 쓰므로 적재적소에 한자를 집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한자의 3요소’ 뿐 아니라 ‘同義字와 反義字’에 대한 설명도 하나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⁷⁾ 남한에서는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영역들도 북한에서는 모두 국한 혼용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4) 고등중학교 4학년 한문 교과서

고등 중학교 4학년 한문교과서는 23개 소단원과 3개의 연습, 총 26課로 이루어져 있다. 고등중학교 4학년 한문 교과서도 3학년 교과서 체제를 이어받아 국·한 혼용문이 대부분이다. 그 중 4학년 교과서에는 국한 혼용문의 詩가 아닌 ‘漢詩’가 수록된 소단원이 있다. 이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4학년 한문 교과서는 중학

57)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2001. 20과 등 모두 1개의 소단원이다.

교 과정 중 최상급학년이기에 국한 혼용문의 학습량이 길어지고, 좀 더 어려운 한자어가 본문에 수록되어 있다.

고등 중학교 4학년 한문 교과서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 2, 3학년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漢詩가 첫 번째 소단원인 ‘不滅의 송시 《광명성찬가》’라고 하여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단지 한 차례만 다루고 있다.

偉大한 首領 金日成大元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教示하였다.

《金正日同志가 主體革命偉業을 繼承해 나가는 領導者로서 人民들의 尊敬과 사랑,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탄생 50돐을 맞으면서 人民들의 한결 같은 心情을 담아 그를 찬양하는 송시를 썼습니다.》

偉大한 首領 金日成大元帥님께서는 우리 黨과 우리 人民의 偉大한 領導者이시며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이신 敬愛하는 金正日元帥님의 탄생 50돐을 축하하시여 몸소 봇을 드시고 漢字로 된 不滅의 송시를 지으시였다.

白頭山頂正日峯
小白水河碧溪流
光明星誕五十週
皆贊文武忠孝備
萬民稱頌齊同心
歡呼聲高震天地

우선 한시가 창작되게 된 배경 설명을 국한 혼용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문학 양식의 詩序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아래에 한시 원문이 제시되었는데 7언 6구로 되어있다. 남한의 경우 漢詩가 제시되어 있는 소단원에서는 작가, 창작 배경, 형식 등의 설명이 부가되는 반면, 북한의 경우는 전혀 이러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인용된 漢詩는 김일성의 자작시이다. 이는 남한

교과서의 경우 중국의 유명한 唐詩 또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漢詩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위의 인용된 한시의 내용은 80세가 된 아버지 김일성이 50세가 된 아들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이미 아들을 후계자로 삼은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이 시를 쓴 2년 후에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는 김일성의 사후에 김정일에게 확고히 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시이기도 하다.

또한 이 소단원에서는 漢詩에 관한 ‘단어해석’과 ‘문장 분석’이라는 코너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漱詩에 나오는 단어와 詩를 한 구절씩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한시의 이해를 돋고 있다. 특히 ‘문장 분석’에서는 각 詩句마다 번역 방법이나 시적운율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문장분석

白頭山頂正日峯; 《白頭山頂》은 상황어이고 《正日峯》은 술어이다. 《頂》은 《정수리》, 《꼭대기》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시의 서정을 살려 《마루》라는 뜻으로 써였다. 이 문장의 번역에서는 시의 운률에 맞게 《솟아있고》를 보태여 번역해야 뜻이 통한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 있고》⁵⁸⁾

7언 6구로 구성된 한시의 각 句를 위와 같은 형식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 전통 漱詩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시의 형식’, ‘암운’ 등 詩의 양식에 관한 설명은 일체 보이지 않는다.

둘째, 한자 뜻의 활용과 적용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는 소단원이 있다. 이는 前학년에서 학습한 내용과 중복되지만, 내용의 수준이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한자의 本來의 뜻과 과생된 뜻을 설명한다.

58)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2001. 1과 등 모두 1개의 소단원이다.

漢字의 本來의 뜻이란 漢字가 原來 가지고 있는 뜻을 말하고 파생된 뜻이란 오랜 歷史的期間 傳하여 오면서 쓰이는 過程에 本來의 뜻에서 갈라 져 나와 생긴 여러 가지 뜻을 말한다. 예를 들면 《卒》은 《군사》(軍士)라는 本來의 뜻과 함께 《마치다》(卒業), 《갑자기》(卒倒)라는 파생된 뜻도 가진다.

이러한 한자의 뜻에 관한 설명은 남한의 경우 본문에 첨부되지 않고 교사의 부가적인 설명으로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북한은 본문에 제시하여 실용한자를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음은 한자의 부분적인 뜻과 총체적인 뜻에 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다.

漢字의 部分的인 뜻이란 主로 形聲漢字에서 部首가 가지고 있는 뜻을 말하며 총체적인 뜻이란 겹자의 뜻을 말한다. 예를 들면 形聲漢字인 《橋》와 《絡》에서 部分의인 뜻은 《나무》와 《실》이며 총체적인 뜻은 《다리》와 《얽다》이다. 그런데 총체적인 뜻과 部分의인 뜻사이에는 意味의으로 一定한 련관성이 있다. 가령 形聲漢字 《評》인 경우 《言(말)》을 部分의인 뜻으로 한 글자이므로 총체적인 뜻은 《말》과 관련된 《평론하다》인 것이다.⁵⁹⁾

한자 구성 중 형성자는 음을 유추하기에 적합하다. 그렇지만 음부분이 아닌 부수부분은 대체적으로 뜻을 유추하는 재료로 삼을 수 있다. 한자를 구조적으로 심화학습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사려된다.

셋째, ‘第十課. 《米軍 나가라!》’라는 소단원에서는 統一을 가로 막고 있는 주된 장애는 미국이라는 김정일의 말과 함께 反美의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온다. 여기

59)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2001. 8과 등 모두 1개의 소단원이다.

서 ‘米國’이라는 어휘가 제시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한에서는 미국을 ‘美國’이라고 쓰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米國’이라고 표기하는 점이 흥미롭다.⁶⁰⁾

米帝의 强占으로 하여 南朝鮮人民들은 恥辱스러운 植民地노예의 運命을 强要 當하고 있으며 (중략) 南朝鮮人民들과 青年學生들은 《米軍 나가라!》, 《살인자 米軍은 제 소굴로 돌아 가라!》고 웨치면서 果敢히 戰爭에 떨쳐 나서고 있다. 祖國統一은 米帝侵略者들을 몰아 내야만 이룩할수 있다. 승냥이는 봉둥이로 때려 잡아야 한다. 우리들은 民族의 숙원인 祖國의 自主的統一을 이룩하기 為하여 侵略의 元凶이며 徹天之怨讐인 米帝侵略者들을 모조리 때려 부셔야 한다.

위의 인용문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신 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한 혼용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 예를 들면 ‘美帝’, ‘侵略者’ 등을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

넷째, 4학년 한문 교과서에는 2학년에 이어 ‘四字句’라는 사자성어를 학습하는 소단원이 있다. 학습 방법은 2학년 교과서와 같이 본문에 사자성어를 제시하고 다시 연습 부분에서 국한문 혼용체를 통하여 학습한 사자성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盲從盲動’, ‘率家逃走’처럼 남한의 중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생소한 사자성어도 제시⁶¹⁾하고 있다.

60) 일본에서도 米國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美國이라고 한다.

61) 이에 관련된 소단원은 『한문(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2001. 12과 등 모두 1개의 소단원이다.

盲從盲動, 率家逃走, 言語道斷, 權謀術數, 空理空談

련습

1. 다음 글을 읽으시오.

- 事大主義에 빠져 남에게 盲從盲動하면 제 精神으로 살아 갈수 없다.
- 그가 千辛萬苦하여 집을 찾았으나 이미 率家逃走한 뒤였다.
- 하는 일 없이 歲月을 보내면서도 우리더러 空理空談하고 있다니 참으로 言語道斷이였다.

결국 ‘盲從盲動’이라는 것은 ‘(아무려한 원칙과 주견이 없이)남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하거나 따라하는 것’⁶²⁾이다. 또한 ‘率家逃走’의 ‘率家’는 ‘제집 식구를 다 데려가거나 데려오거나 함’을 뜻한다. 사자구를 언어생활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제12과’와 ‘제13과’의 두 소단원 사이에 [참고지식]이라는 코너를 두어 ‘옥편 보는 방법’⁶³⁾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한자를 옥편으로 찾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고학년 때에 옥편 찾는 방법을 배운다. 그 내용은 약 2쪽 가량 되는 데 따로 소단원을 두어 설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형태인 [참고지식]을 통하여 설명하는 점이 특이하다. 북한에서는 옥편 찾는 방법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부수, 음, 총획 색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별도의 사진 없이 말로만 설명되어 있다는 점이 남한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구성의 특징

62) 『한자말사전』 조선교육도서출판사, 중국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1, p.579.

63) 『한문(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2001. p.26~27

북한 교과서가 남한 교과서에 비해 가장 큰 특징은 국한 혼용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1학년 교과서에는 9개의 소단원, 2학년 교과서에는 42개의 소단원, 3학년 교과서에는 28개의 소단원, 4학년 교과서에는 20개 소단원의 국한 혼용문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들 교과서 소단원의 본문에 실려 있는 국한 혼용문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教示文,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미와 충성이 담긴 구호, 설명문, 시 또는 일기 등의 국한 혼용문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국한 혼용문이 각 학년별로 어떤 주제나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教示文 형식

북한 교과서의 국한 혼용문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주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교시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교시문이란 가르쳐서 보이거나, 길잡이로 삼는 가르침을 내용으로 하는 글쓰기 양식이다.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반적인 교시문의 내용은 김일성·김정일의 행적을 찬미·찬양하는 것, 북한 체제에 대한 옹호, 자연보호 관련 문장, 조국통일에 관한 문건 등이다. 국한 혼용문 중 교시문의 형식으로 된 소단원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4편, 2학년이 21편, 3학년이 11편, 4학년이 10편으로, 총 46개의 소단원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교시문 형식 소단원

학년	소단원명	本文 內容	學習量
1	52. 위대한 령도자 金正日 원수 님의 名言	명언을 통한 교시	7줄
	58. 榮光의 땅 평포	김일성 행적 찬미	18줄
	59. 우리 祖國	애국하는 마음	12줄
	61. 白頭에서 만나까지	북한체제(조국통일 행진대)	28줄
2	1. 위대한 령도자 金正日 원수님	명언을 통한 교시	9줄

	의 名言		
3.	꼬마살림군들	북한체제(학생활동)	15줄
	4. 教育의 나라	북한체제 옹호	12줄
	5. 검은 金	석탄의 중요성	9줄
	6. 人民生活	북한체제(당 活動)	10줄
	8. 學術用語	학술용어의 중요성	27줄
	15. 三大革命	북한체제 옹호	14줄
	17. 밀림속의 병기창	김일성 찬미	24줄
	19. 約束은 法	약속의 중요성	30줄
	20. 偉大한 首領님의 三大幸福 이야기	김일성 찬미	32줄
	24. 木花꽃	김일성 업적 찬미	25줄
	29. 오늘의 환상을 來日의 現實로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글	23줄
	31. 利로운 새들을 적극 보호하자	자연보호의 필요성	15줄
	32. 온 世上에 黨의 創建을 宣布	북한 체제 옹호	22줄
	34. 끝 없는 热情을 지니시고	김정일 찬미	20줄
	35. 科學의 요새를 向하여	科學의 필요성	20줄
	41. 大田解放전투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한 김일성 찬미	19줄
	46. 오늘의 우리 농촌	김일성의 은덕에 의해 부유해진 농촌	16줄
	49. 철 이른 꽃香氣	김일성의 은덕을 찬미	25줄
	50. 信川땅에 서린 원한	미국에 대한 비방	21줄
	51. 民族大團結의 가치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	27줄
3	1. 主體思想塔	김일성 찬미	31줄
	2. 어머니 黨	어머니 黨의 선전	28줄

	3. 獨立萬歲의 메아리	3. 1 운동	37줄
	4. 우리 黨의 빛나는 革命傳統을 계승發展시키자	혁명역사를 지켜나가자는 내용	17줄
	8. 새 世代들은 革命의 繼承者이며 未來의 주인공	새 世代들을 教養하는 방법	23줄
	10. 偉大한 領導者 金正日元帥님의 名言	충효의 중요성	19줄
	11. 漢文學習을 꾸준히 하도록 이끄시어	한자학습의 중요성	19줄
	17. 民族最大의 名節	김일성 탄생일 축하글	21줄
	18. 大城山	大城山의 역사	19줄
	21. 偉大한 模範	김정일 찬미	17줄
	31. 統一의 웨침	남한 비방	19줄
4	2. 太陽의 永遠한 미소	김일성·김정일 찬미	38줄
	3. 偉人中의 偉人	김정일 업적 찬양	26줄
	4. 無敵必勝의 령장	김정일 업적 찬양	30줄
	5. 높이 들자 붉은기(노래)	김일성과 黨에 대한 충성 다짐	55줄
	6. 맞혀도 꼭 目標의 中心을 맞혀야 한다	김정일의 행적	39줄
	10. 《米軍나가라!》	反美 감정	28줄
	15. 萬年礮石	북한 체재 소개	25줄
	16. 公害를 모르는 나라	김일성·김정일 행적 찬양	34줄
	20. 統一國家의 國號一고려	‘고려’라는 국호의 字源	34줄
	24. 韶의凡節이 밝은 나라	인사예절	38줄

교시문으로 이루어진 소단원 중,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미와 우상화가 주제인 것은 19편, 도덕성 및 애국심에 관한 것은 9편, 북한 체제 소개 및 옹호에 관한 것은 9편, 과학·역사 등 학술 용어에 관한 설명이 5편, 反美·反南 감정을 드러낸

것이 3편, 한문한습에 관한 것은 1개이다.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한 내용이 빈도수가 제일 높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3학년 교과서 ‘第十八課. 大城山’의 본문은 大城山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지명에 대한 소개에서도 김일성의 教示는 빠지지 않고 삽입되어 있다.

偉大한 首領 金日成大元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教示하시였다. 《…大城山은 자랑스럽고도 오랜 歷史를 가진 곳입니다. 大城山에는 抗日革命鬪士들의 묘지가 있고 歷史유적들도 많습니다.》 大城山은 자상스럽고도 오랜 歷史를 가진 곳이다. …

이처럼 ‘大城山’에 관한 객관적 소개를 하면서도 김일성의 언급을 첨부하여 ‘大城山’의 의미를 부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이 강조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의미 깊게 전달되어 교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2) 설명문 형식

북한 한문교과서 구성의 주요 양식 중 다수의 설명문 양식이 눈에 띈다. 설명문이란 읽는 이들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북한 한문 교과서는 왜 설명문 양식을 선호하였을까.

설명문으로 된 국한 혼용문의 제재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4편, 2학년이 15편, 3학년이 15편, 4학년이 10편이다.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교과서의 설명문 형식으로 된 소단원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설명문 형식 소단원

학년	소단원명	본문 내용	학습양
1	50. 한자의 부수	부수에 대한 이해	22줄
	53. 충성의 맹세	김정일, 김일성 찬미 구호	10줄

	54.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투쟁 위인의 찬미	11줄
	60. 登山길에서	북한체제(학생활동)	19줄
2	9. 《白頭光明星》	김일성 찬미하는 구호	11줄
	10. 기초漢字	기초한자의 뜻	27줄
	11. 革命의 첫 任務	선동구호	11줄
	13. 개선문	개선문 건설에 대한 글	11줄
	14. 축우기	축우기에 대한 설명	12줄
	22. 《共產主義建設의 後備隊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원들이 갖추어야 할 것	23줄
	26. 漢字부수의 쓰임	부수의 쓰임	23줄
	28. 良民보증서	혁명투사 김정숙에 관한 글	35줄
	30. 알았습니다!	혁명가 김일선생에 관한 글	33줄
	36. 漢子의 소리	漢字소리(음)의 필요성과 쓰임	23줄
	38. 예술의 나라	김정일 찬미	18줄
	43. 하늘은야 높고	북한 여성운동가인 강반석 女史에 관한 글	19줄
	44. 革命의 司令部를 생각합시다	혁명가 최춘국 선생에 관한 글	15줄
	48. 朝鮮南海一多島海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섬들과 그 특징	21줄
	49. 철 이른 花香氣	김일성의 은덕을 찬미	25줄
3	5. 오늘의 황철	오늘날 황철 공정의 현황	18줄
	7. 漢字의 部分的소리와 총체적 소리	형성자의 음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	26줄
	9. 革命의 성산 白頭山	백두산에 대한 설명	23줄
	12. 三角形과 角	수학 용어의 이해를 위한 한문학습의 중요성	20줄
	13. 땅과 토양	땅과 토양의 개념과 어휘의 차이점	25줄

	14. 正字와 略字	정자와 약자의 개념정의와 약자의 필요성	24줄
	16. 漢字의 세 要素	모양이 비슷하거나 뜻이 같은 경우, 한자 삼요소의 중요성	25줄
	20. 同義字와 反義字	동의자와 반의자에 대한 설명과 쓰임	31줄
	23. 貴重한 地下資源	석탄, 금, 은, 동 등 지하자원의 필요성	24줄
	25. 漢字의 뜻의 합성	한자어의 조성의 의미와 쓰임	34줄
	26. 무송현 妖령戰鬪	김일성의 妖령 전투 선전	20줄
	27. 革命的口號문현	북한체제를 찬미하는 구호	7줄
	28. 肝의 構造와 機能	간의 구조와 기능	8줄
	29. 革命일화 《몸소 지키신 질서》	김정일 행적 찬미	21줄
	30. 지양개등판에서의 軍民련환 大會	김일성의 회고록과 찬미	14줄
4	7. 現代漁業	북한의 현재 漁業 상황	26줄
	8. 漢字의 뜻	한자의 부분적인 뜻과 총체적인 뜻	36줄
	11. 榮光의 대오에	북한 체제 소개	29줄
	13. 青少年들의 文化情緒生活	청소년의 문화정서교양 키우기	34줄
	14. 마음껏 才能을 끊 피우는 나라	김일성·김정일 찬미	35줄
	17. 青少年들을 爲한 出版物	청소년들을 위한 출판물 소개	32줄
	18. 《志遠》의 愛國思想	혁명투사 김형직선생에 관한 글	38줄
	21. 發展된 오늘의 科學	과학이 발달해온 과정	28줄
	22. 物理는 基礎科學의 하나	물리의 중요성	25줄
	23. 電子손목時計	전자손목시계의 발달	36줄

설명하고 있는 주제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김정일·김일성에 대한 찬미의 구호, 학생활동과 같은 북한 체재 소개 및 옹호, 혁명투사에 관한 내용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런 주제를 양적으로 분석하면 김일성·김정일 부자 또는 혁명가에 대한 찬미에 관한 설명문이 14편, 수학·과학 또는 지형 등 일상적 생활에 관한 설명이 13편, 한자의 지식에 관한 것이 10편, 북한 체제에 관한 내용은 7편이다. 이러한 양적 분석을 통하여 설명문을 사용한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즉, 학습자에게 한문 교과서를 통하여 체제 및 일반 상식에 관한 것들을 보급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설명문 양식에도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학년 한문교과서 ‘第三十六課. 漢字의 소리’라는 소단원은 본문의 첫 줄부터 “偉大한 領導者 金正日元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漢文學習에서 基本은 漢字의 뜻과 音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또 3학년 한문교과서 ‘第二十五課. 漢字의 뜻의 合成’이라는 소단원에서도 “偉大한 領導者 金正日元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漢文는 뜻이 있는 文字이기 때문에 每 글자의 뜻을 바로 아는것이 重要합니다.”라고 김정일의 한문 교육관련 발언을 첨부하고 있다. 漢字의 소리의 필요성과 그 쓰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시할 필요까지 없는 김정일의 말을 넣어 한자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말은 근거 있고 확실한, 위대한 지도자의 말이다. 그들의 권위를 살리고, 더 나아가 학습자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의 말을 인용하여 믿고 따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3) 일기문 형식

북한 한문 교과서에 숫자적으로는 적은 양이지만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문 형식인 일기문이 5편 들어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기문이란 일상생활의 기록으로, 내용도 용이하여 독자로 하여금 친근감을 갖게 한다. 즉 친근함 속에서 한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문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런 일기문 형식은 1학년과 4학년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고, 2학년 교과서에 3편, 3학년 교과서에 2편이 보인다. 1학년 교과서에서는 국한 혼용문으로 된 본문 자체가 적고, 위의 학년 교과서로 갈수록 이념적인 내용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1학년과 4학년 교과서에는 일기문 양식의 본문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교과서의 일기문 형식으로 된 소단원은 다음 <표9>와 같다.

<표 9>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일기문 형식 소단원

학년	소단원명	본문 내용	학습양
2	23. 야영의 하루	야영장에서의 하루	18줄
	37. 日記	학생의 하루일과	14줄
	45. 다시 찾은 民族의 넋	오랜만에 고향땅을 찾은 감회	29줄
3	19.왕재산으로 가시는 길에서	김정일 찬미	21줄
	22. 꼬마宣傳隊	답사길에 오른 宣傳隊 꼬마의 일기	24줄

2학년 한문 교과서에 실린 ‘第二十三課. 야영의 하루’라는 소단원에서는 야영지에서의 하루 일과를 일기로 써놓았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물론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이 담겨있다. 이런 점이 남한 교과서와는 다른 북한 교과서의 특징이다.

오늘도 偉大한 元帥님의 따사로운 사랑속에서 즐거운 야영의 하루가始作되었다.
 偉大한 領導者 金正日元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어린
 이들은 首領님께서 세워 주신 좋은 社會主義制度에서 幸福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우리는 偉大한 元帥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야영소들과 學生少年宮殿들
 에서 自己의 才能을 활짝 꽂 피우며 學生時節을 보람차게 보내고 있다.⁶⁴⁾

3학년 교과서의 ‘第二十二課. 코마 宣傳隊’라는 본문 역시 일기문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교시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나는 白頭山一帶의 革命史蹟地답사에 오른 어느 祖國방문단成員들을 茂山地區 革命戰蹟地까지 案内하면서 그들의 편의를 돌봐 주라는 課業을 받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길에 올랐다. … 偉大한 首領 金日成大元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教示하시였다. 《…鐵道를 애호하는 廣汎한 運動을 展開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鐵道 운수일군들을 비롯하여 全體 人民이 다 參加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格式도 없이 이렇게 始作한 宣傳活動은 피곤이 깃든 魷객들의 耳目을 集中시켰다. … 나는 두줄 기의 철길우에 깃든 이곳 學生들의 至誠에 對한 詳細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感歎하였다.⁶⁵⁾

1인칭 시점의 친근하고 쉬운 글쓰기 양식인 일기문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김일성·김정일의 教示를 학습자가 매우 존경하는 마음자세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여기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더 김일성·김정일 父子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4) 운문 형식

북한 한문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문학적 장르는 ‘詩’라고 할 수 있다. 시 형식으로 된 국한 혼용문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1편, 2학년이 3편 있다. 3학년과 4학년 교과서에는 국한 혼용문으로 된 시의 장르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교과서의 일기문 형식으로 된 소단원은 다음 <표 10>과 같다.

64) 『한문(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2001. p.42(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65) 『한문(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2001. p.32(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표 10>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운문 형식 소단원

학년	소단원명	본문 내용	학습양
1	57. 불휘의 고전적 名作 축복의 노래	김일성 찬미	12줄
2	2. 正日峯에 올라요 將子山에 올라요	북한 시	8줄
	16. 전진가	혁명투사의 시	8줄
	25. 太陽의 祖國	김일성, 김정일 찬양	43줄

시 형식의 본문 역시 다른 형식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의 형식이고, 저학년의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다. 1학년 교과서 ‘제 五十七과. 불후의 고전적 名作《축복의 노래》’에 수록된 시를 살펴보자

어둡던 江山에 봄을 주시고
 朝鮮을 빛내신 아버지장군님
 ...
 나라의 運命을 한몸에 지니신
 아버지장군님 人民의 首領님
 준엄한 전선길 안녕하심은
 온나라 가정의 幸福입니다.⁶⁶⁾

詩는 다른 양식에 비해 보는 사람에게 정서감정에 호소를 함으로써, 가슴깊이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국가에 대한 복종과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기르게 하는,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66) 『한문(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p.117(표기 방식은 원문을 따름).

IV. 결론

이 논문은 북한의 한문교육을 고등중학교 한문교과서 중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과서 4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이를 남한의 한문 교과서와 비교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남북한의 통합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논문은 북한 고등중학교의 한문 교과서와 남한의 한문 교과서 2종을 주로 분석하여, 남한과 북한 교과서에 수록된 외형적 체재 및 구성유형을 비교하고, 북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남북한 한문 교과서의 외형적 체재와 구성 유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고등중학교에서 한문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1종류뿐이고, 각 학년별 1권씩 4학년까지 4권을 중학교 전 과정에서 모두 학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현재 1학년은 개정교육과정에 준한 교과서가 사용되고, 나머지 2·3학년은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종류가 10종이나 된다. 각 종류는 3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학교마다 한문교육의 시행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이 점이 우선 눈에 띄는 남북한 한문교과서의 차이점이다.

둘째, 북한 한문 교과서의 머리말을 통하여 북한 한문교육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특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과, ‘우리 역사의 연구를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또 한자문화권의 주변나라와의 교류관계를 확장하고 심화하기 위함이라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문교육의 목표만을 가지고 보면 남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문교육의 목표와 그다지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

셋째, 북한에서 학습하는 교육용 한자 수는 1학년이 350字 정도, 2학년이 340字 정도, 3학년이 190字 정도, 4학년이 170字 정도이다. 모두 합하면 약 1,100字 정도를 학습한다. 남한의 중학교용 교육용한자가 900字인것에 비하면, 북한 쪽이 약

200字정도 많이 학습하는 것이 된다.

넷째, 남한의 한문 교과서는 대단원 구성체제이다. 주제별로 구성된 4~5개의 소단원이 대단원을 이룬다. 따라서 하나의 대단원에 속해있는 소단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소단원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주제는 설정되어있지 않다. 또한 북한 교과서가 한 소단원 당 1~4쪽으로 일정치 않고, 한 소단원에서 학습하는 한자 수가 적게는 5자부터 많게는 20자까지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남한 교과서는 소단원마다 정해진 일정한 쪽수가 있고, 또한 하나의 소단원에서 배우는 한자수가 거의 균일한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에서 비교하면, 북한 교과서에 비하여 남한의 교과서가 사진·삽화 등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북돋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북한 한문교과서도 1학년 교과서에는 한자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동기유발을 위해 삽화가 제시되어 있지만, 학습 내용이 심화된 2학년에서 4학년까지 교과서에는 삽화가 일체 보이지 않는다.

여섯째, 평가영역에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확인학습’ 또는 ‘련습’ 등의 항목에서 각각의 소단원 학습내용을 되짚어 복습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한문 교과서는 각 소단원의 학습내용을 평가하는 ‘련습’ 이외에, 학습한 한자수가 30~40자가 되는 지점에서 ‘복습’이라는 소단원을 따로 마련하여 한번 더 총괄적인 복습을 유도하고 있는 점이 남한과 비교된다.

남북한 교과서의 교육내용을 분석 ·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한의 한문교과서 본문은 1학년에서는 주로 한자와 한자어, 그리고 2·3학년에서는 단계별로 성어나 단문, 그리고 한시를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면, 북한 한문교과서는 본문을 국한 혼용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교과서의 체제상의 가장 두드러진 다른 점이다.

둘째, 중학교 과정의 남북한 한문교과서는 둘 다 모두 한자학습의 초기단계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고등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첫 소단원은 한자의 구성성분인 ‘점과 획’부터 학습하기 시작하여, 새로 배우는 한자의 획순과 글씨체를 학습시키고 있다. 이 점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유사하다.

셋째, 북한 한문교과서의 학습목표가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자어의 음운법칙, 예를 들면 두음법칙과 같은 내용도 교과서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 남한교과서에 비교하면 색다르다. 남한의 교과서는 대부분 교사가 수업시간에 설명하는 말 가운데 포함되고, 교과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넷째, 북한 한문교과서도 도구교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수학 · 물리 등 다른 과목에서 다루는 용어를 한자로 학습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地名을 地圖과 함께 한자로 정확히 쓸 수 있게 지도하고 있다. 남한의 한문교과서도 도구교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북한에 비하면 양도 적고 난이도도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남한의 한문교과서는 교육내용의 50%정도 한국한문학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 고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한시학습의 경우 우리나라나 중국의 유명 漢詩를 학습한다. 唐詩와 조선 유학자들의 漢詩 학습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화된 교육내용이다. 반면, 북한은 항일운동가의 시나 김일성의 자작시를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특이사항 중 하나가 된다.

여섯째, 남북한 공히 四字成語는 중요한 학습내용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군사행동에 적합하거나 反美내용의 사자성이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다. 게다가 남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자성어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오래되면 남북한의 어휘사용에 상당히 이질적 기류가 흐르게 될 것 같다.

남북한의 한문교과서는 형식과 내용에서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한문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연유하기도 하지만, 두 사회의 언어사용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의 반영이기도 하다. 따

라서 본고와 같은 남북한 교과서의 비교연구는 남북한 학습환경 및 언어사용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차후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한문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하여, 남한의 한문교육은 전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는 면이 두드러진데 반하여, 북한의 한문교육에서는 현재성과 정치성이 중시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도 상호의 동질감을 확인할 수 있는 선상에서 편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가 통일 前에는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한문교육의 하나의 초석이 되고, 통일 後에는 민족 동질감을 회복하는 한문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교과서

(남한 교과서 자료)

윤미길 · 백원철 · 한성희, 『중학교 한문 1』, 교학사, 2002.

_____, 『중학교 한문 2』, 교학사, 2002.

_____, 『중학교 한문 3』, 교학사, 2003.

이상진 · 최상근 · 박장렬, 『중학교 한문 1』, 동화사, 2001.

_____, 『중학교 한문 2』, 동화사, 2002.

_____, 『중학교 한문 3』, 동화사, 2003.

(북한 교과서 자료)

박종원 · 최영남 · 강태선, 『고등중학교 한문 1』, 교육도서출판사, 2002.

_____, 『고등중학교 한문 2』, 교육도서출판사, 2002.

_____, 『고등중학교 한문 3』, 교육도서출판사, 2002.

_____, 『고등중학교 한문 4』, 교육도서출판사, 2002.

2. 저서

교육부, 『제 7차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5』, 대한교과서, 1999.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한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국립국어연구원, 『북한의 언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1992.

윤광보 · 김용욱 · 최병옥, 『교육방법과 교육공학의 이해』, 양서원, 2003.

정종남,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 을지서적, 1999.

조오현 · 김용경 · 박동근, 『남북한 언어의 이해』, 역락, 2002.

조오현 外 4명 『북한 언어 문화의 이해』, 경진문화사, 200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新漢文科教育論』, 전통문화연구회, 2000.

한예원, 『한문 교육론 -반성과 전망-』, 문자향, 2006.

3. 논문

김상홍 外 5명, 『남·북한 중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9.

김종운, 「남·북한 초등 교육용 한자 비교」, 『한자한문교육』1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3.

박종덕, 「남·북한 한자·한문 교육 정책 비교 연구」, 『겨레어문학』28, 겨레어문학회, 2000.

방인태, 「남·북한 초등 한자 교육 비교」, 『한자한문교육』 제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9.

안재철, 「남북한 한문 교과서 분석 비교 연구」, 『한자한문교육』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1.

_____,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한자·한문 교육의 방안」, 『한자한문교육』1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3.

_____, 「북한 고등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교육 내용 분석」, 『한자한문교육』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9.

_____, 「북한 한문 교과서 분석 연구」, 『한자한문교육』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9.

주동일, 「북한의 한문 교육 방법」, 『한문교육연구』15, 한국한문교육학회, 2000.

진재교, 「북한의 어문정책과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14, 2000.

최용기,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

최호영, 「북한 한문교과서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추필식, 「북한 한문교과서의 분석적 연구」, 『한자한문교육』8, 한국한자한문교

육학회], 2002.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한문교육	학 번	20078190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김 주 형	한문: 金 烊 亨	영문: Kim Ju-Hyeong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금호아파트 106동 1501호				
연락처	010 * 4605 * 0393	E-MAIL:	kjh830322@naver.com		
논문제 목	한글 : 남·북한 중학교 한문 교과서 비교 분석 영문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inese classics textboo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t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역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0년 6월 11일

저작자: 김 주 형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